

액티브 시니어의 경력지향성과 창업교육 만족이 창업의지와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종범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석사)*
양영석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부교수)**
김명숙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조교수)**

국 문 요 약

국내의 고령화 문제를 인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체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구조가 문제이다.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인구 집단은 베이비부머, 포스트 베이비부머 세대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1963년생으로 현재 인구는 700만 1,333명이며, 전체인구의 약 13.6%(2015년 기준)를 차지한다. 포스트 베이비부머 세대는 1964~1974년생으로 총인구는 956만 7,171명으로 총인구의 18.8%에 해당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와 포스트 베이비부머 세대(총 인구대비 32.4%)가 은퇴를 시작하였고, 조만간 은퇴할 예정이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신생아의 출산을 저하, 생산인구의 감소는 국내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안으로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다양한 경력기반에 기초한 경력지향성과 창업 교육 만족도가 창업 의지, 창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또한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액티브 시니어의 다양성에 대한 맞춤형 창업 교육 중요성을 제안하고 시니어 창업정책 설계 및 자금지원, 창업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액티브 시니어, 경력 지향성, 창업 교육 만족도, 창업 의지, 창업 준비 행동의 5개 요소의 개념을 정의하고, 특히 핵심이 되는 액티브 시니어의 개념적 정의를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 60대로 비즈니스의 핵심소비 주체나 복지혜택의 수급대상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창업 시장에서의 40대, 50대, 60대 순으로 연령별 창업기업 수가 높은 것을 반영하여 액티브 시니어 창업가를 예비시니어(Pre Senior)를 포함한 경력, 경제력, 소비력을 갖추고 활발한 활동과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40대에서 60대까지 세대를 액티브 시니어로 정의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로 가설 1과 가설 5에서 경력 지향성은 창업 의지와 창업 준비 행동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3에서 창업 의지는 창업 준비 행동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4에서 창업 교육 만족도는 창업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가설 2에서 창업 교육 만족도는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 의지에 직접적인 효과는 미치지 못하고 개인적인 경력 지향성의 영향을 통해 창업 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액티브시니어 창업정책 수립 방향 수립에 의미를 제공한다.

핵심주제어: 액티브 시니어, 경력 지향성, 창업 교육 만족도, 창업 의지, 창업 준비 행동

1. 서론

국내의 고령화 문제는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구조의 문제이다.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 7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2017년부터 감소세이다. 2016년 3,700만 명에서 2040년 2,880만 명으로 820만 명 감소가 예상된다. 노인부양 비율(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 인구)은 2015년 17%에서 2055년 80%로 대폭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40, 50대 포스트 베이비부머세대의 인구수는 1,600만 명이고 20년 후에는 60~70대로 포함될 예정이며, 의학기술의 발달은 평균 수명을 증가

하게 만들고 있다.

평균 수명의 증가는 죽음의 시기를 늦추게 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에 약 62세였던 평균수명이 2015년에는 약 82세로 20년 정도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는 기간을 뺀 나머지 수명 즉, 얼마나 건강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건강수명 또한 80세까지 상승하였다(통계청, 2015).

국내에서 인구 규모가 큰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와 포스트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였고, 조만간 은퇴할 예정이

* 주저자,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석사, bom5189@naver.com

** 교신저자,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부교수, ytony@hanbat.ac.kr

*** 교신저자,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조교수, kmsjws@hanbat.ac.kr

· 투고일: 2020-01-09 · 수정일: 2020-02-10 · 게재확정일: 2020-02-19

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6.25 전쟁 직후인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현재 만 56~64세)로 현재 인구는 700만1,333명이며, 이는 총인구의 13.6%(2015년 기준)에 해당한다(조현승, 2017).

그리고 포스트 베이비부머 세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불리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음 세대를 지칭한다. 이들은 1964년부터 1974년까지의 출생자(44~55세)로, 현재 40대와 50대 중반에 분포되어 있다. 총인구는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많은 956만 7,171명이며, 전체인구 대비 18.8%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30년간의 고령자 증가는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기준으로 하여 3가지 시나리오로 향후 30년간의 경제성장률을 분석 결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스웨덴 수준, 남성은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노력과 함께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국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니어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고 노령인구의 복지혜택 부담도 줄이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부터의 시작이며, 노인 인구의 증가와 수명 연장, 고령화 따른 심각한 위기의 시작점에서 40대 이상 시니어세대들은 더욱더 오랜 기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시니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력(경험, 취업)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력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평생직장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있다. 38선(삼팔선)은 38세가 되면 직장에서 퇴출당한다는 뜻이고, 45정(사오정)은 45세가 되면 청년이 된다는 뜻이고, 56도(오륙도)는 56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 도둑놈이라는 뜻으로 조기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니어들은 소득, 건강관리 여러 이유로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는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48.8%(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12.1%로 매우 높은 편이며,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가뜩이나 노인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들 간 일자리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 전반적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의 일환, 고령화 문제의 해결안으로 시니어 창업은 매우 큰 관심이 받고 있다. 이에 시니어 창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수적 시기가 도래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수명 연장, 고령화 따른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액티브 시니어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액티브 시니어의 경력 지향성, 창업 교육 만족도, 창업 의지, 창업 준비 행동 선행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그 개념과 구성요소를 이해하고자 한다. 액티브 시니어의 경력 지향성, 창업 교육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소들과 창업 의지와 창업 준비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액티브시니어의 경력 기반의 경력지향성과 창업 교육 만족도가 창업 의지, 창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설명하고 상호 관계를 규명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창업정책 설계 및 자금지원, 창업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선행연구 검토

2.1 액티브 시니어

2.1.1 시니어와 액티브 시니어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는 나이들어 늙은 사람, older(elderly) person(man), older adult, senior citizen이며, 학술적 의미로 국제노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1951)는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신체적, 환경적, 심리적 변화 및 행동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적 의미로는 국가 정책적 차원의 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1889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한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선진국의 대부분이 역 연령(calendar age)의 65세이상을 노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률기준으로 연금 지급시기, 노인복지시설 입소 시기 등의 결정기준인 ‘노인’, ‘고령자’ 등의 기준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사회적 의미는 100세시대를 살아가는 현 사회에서는 ‘고령자’,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연령 중립적 의미가 있는 서구식 ‘시니어(Senior)’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2011년 국회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를 ‘시니어’로 바꾸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에는 정부가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연금 재원 부족 등의 문제 해결안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산업적 의미의 노인(고령자)은 기존의 법률·학술적 정의를 활용하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의한다. 산업적으로는 사용자, 소비자의 관점에서 50세를 기준으로 예비시니어(Pre Senior)와 시니어(Senior)로 구분한다.

시니어는 50세~64세까지의 뉴시니어(New Senior)와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 나누고, 65세이상 ‘실버(Silver)’로 구분한다. 뉴 시니어(New Senior)는 50~64세의 연령에 사회적으로 출생률이 높은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다양한 측면(사고방식, 체력, 라이프 스타일 등)에서 젊고 활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소비 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점에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고 한다. 기존 실버세대와 다른 시니어 비즈니스의 핵심소비 주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반부터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베이비부머세대인 1955~1963년생이 50대가 되는 200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산업 활성화 정책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06. 12) 실행에 따라 ‘고령친화 산업(Senior Friendly Industry)’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과 한국은 민간 비즈니스 차원에서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실버산업과 한국의 고령 친화 산업은 시장 확대를 위하여 뉴시니어(액티브 시니어)를 포함하고 있다.

40-50대를 주요 소비자층으로 확대한 ‘시니어 비즈니스(Senior

Business)’의 폭을 더욱 넓게 하여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 의미는 은퇴 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60대를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이들은 활동적 고령자로 은퇴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고, 외모,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고, 자신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유 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높은 구매력과 여가 및 사회·문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실버 세대’와 구분된다. 액티브 시니어는 어모털족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모털족이란 실제 나이를 잊고 평생을 젊게 사는 사람이나 집단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나이에 대한 생각이 변하여 고령에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액티브 시니어라는 용어는 새로운 시니어층을 일컫는 신조어로서 Neugarten에 의해 처음으로 유래되었다. 뉴가튼(Neugarten, 1982)은 ‘노인’은 75세 이후를 의미하고 40세-49세는 프리시니어로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이며, 그 중간에 해당하는 50세-75세까지는 ‘액티브 시니어’라 할 수 있다. 고령자들을 55세부터 75세까지 장년층(The young-old), 75세이상을 고령층(The old-old)으로 구분하였다.

55세-75세에 새롭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년 그룹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한다(홍우정, 2019).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기는 50대, 60대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이들을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정의된다(김지은, 2016). 또한 액티브 시니어의 주축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이며 이는 가족 중심의 소비 패턴이 자기개발과 패션, 미용 등으로 변화되는 것을 포착해 만들어진 용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액티브 시니어가 건강한 노후 준비를 끝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며 여가와 문화 외에 정보통신기술 환경에도 익숙한 신 노년층을 의미한다(송나운, 2011).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는 50-60대를 일컫는 말이다(정영원, 2019).

2.1.2 국내 시니어 창업지원 현황

국내 시니어 창업지원의 경우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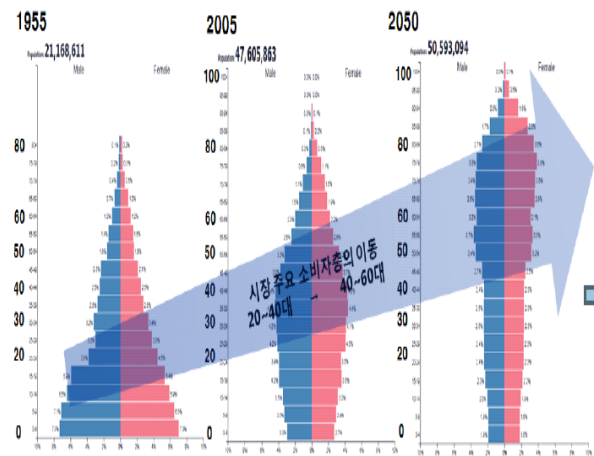
첫번째, 시니어 기술창업스쿨은 시니어의 경력·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실무중심의 기술창업업종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총 15개 주관기관을 통해 시니어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100시간 이상의 실전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두번째,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는 경력과 네트워크 전문성을 소유한 만 40세이상 시니어로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창업교육과 창업자거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총 27개 주관기관을 통해 시니어(예비) 창업자에게 사무 공간, 전문가 자문·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세번째,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는 패기 넘치는 청년의 아이디어, 중·장년의 경험과 기술이 융합된 세대융합 창업팀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역량 있는 중장년을 초기 창업기업에 매칭하여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초기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 추경으로 신설되어 전국에 6개의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팀을 선발·지원하였으며, 선발된 창업팀은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의 초기창업 모든 단계를 집중 지원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조례에 따른 50플러스세대는 만50세-64세 장년층을 지칭한다. 호모 헉드레드(Home Hundred) 시대인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류 최초 100세 시대를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50플러스세대를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2016년 4월 28일 설립되었다. 서울시 50플러스 세대는 만 50-64세의 베이비부머 세대와 신 노년 등으로 일컫는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지원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지원 기관이다. 특히 부처별 산재한(취업, 복지, 교육, 상담 등) 중장년 정책을 통합해 50플러스세대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자체 최초로 50플러스를 돕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창업지원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으로 중장년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자료원: <https://www.populationpyramid.net>, 대한민국 데이터 활용 연구소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 REPORT 2017-6, p7

<그림 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40-60대 연령층의 이동 변화

<그림 1>에서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40-60대 연령층의 이동 변화를 볼 수 있다. 시니어 창업지원에 대한 기준을 결정할 때 <그림 1>를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2.1.3 시니어창업의 개념

시니어 창업이란 이미 창업을 한 50세이상의 기업가가 아니라, 시니어에 의해 새롭게 창업하는 제2의 경력 창업가를 의

미한다(Baucus & Human, 1994). 또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50세 이상이 경영하는 창업가의 기업 창업을 의미하고 (Arkebauer, 1995), 50세에서 75세 사이의 개인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경영하는 창업가를 의미한다(Blackbrun et al., 1998).

미국의 중소기업청은 시니어 창업은 50세 이상의 개인의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창업 및 운영을 의미하고(김성수, 2019), 호주 통계청은 50세이상의 개인이 퇴직 후 창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50세이상 경력자가 퇴직 후 새롭게 창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니어창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진수(2010)는 연구취업을 준비하던 청·장년기 이후 50대 전후의 은퇴자가 창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장수(2011)는 50대 전후의 시니어가 본인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새롭게 창업하는 것으로 보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만 40세이상의 개인이 창업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김성수, 2019). 이와 유사하게 기존의 직장에서의 퇴직 또는 사업 실패로 재창업 의지를 갖게 되는 만 40세이상의 개인이 창업하는 것으로 일컫는다(유상정, 2016). 국내의 유관기관과 학자들의 견해는 연령대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2.1.4 한국형 액티브시니어창업의 개념

기업제작자의 은퇴 시점과 최근 고령화로 고령자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생산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며, 사회참여와 사회적 기여 등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시니어 창업에 대한 욕구는 통계청(2016년~2018년)이 밝힌 신생 창업기업 수와 대표자의 연령을 비교한 결과 40대, 50대, 60대 순으로 가장 높다. 이는 기존 외국의 시니어 창업가의 정의와는 현실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표 1> 국내 창업자 연령별 창업 기업수 현황(법인+개인)

연령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율(%)	전체(천)	비율(%)	전체(천)	비율(%)	전체(천)
소계	100	1,190	100	1,256	100	1,344
30이하	10	116	10	128	10	138
30-39	25	293	24	297	23	303
40-49	31	367	30	376	29	387
50-59	24	289	25	308	25	339
60대	10	122	11	143	13	172
기타	0	1	0	1	0	1

출처: 중소기업본부, 「창업기업동향」 업종별 연령별 창업기업수 통계청

국내 액티브 시니어의 창업가의 정의를 위해 기본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1>은 창업자 연령별 자료이다. <표 1>에 따르면 국내 창업 기업 수를(법인+개인기업) 창업자 연령별로 3년간(2016-18년)을 분석해 보면 국내 창업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액티브) 활동 중인 연령은 40대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대, 60대순으로 나타났다. 시니어와 액티브 시니어의 개념과 시

어 창업의 개념 관련 선행연구사항을 살펴보면 국내외적으로 액티브 시니어의 개념용어의 기준과 범위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니어 창업자를 40대 이상으로 하는 기준과 산업적 의미, 뉴가든이 명칭한 예비(프리) 시니어를 포함하고 <표 1>에도 나타난 국내의 창업 시장에서의 40대(29%), 50대(25%), 60대(13%)순으로 2018년 기준 창업 기업 수가 높은 것을 반영하여 국내 창업 시장에서의(한국형) 액티브 시니어 창업가의 개념과 정의를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구체화하여 정의하였다.

<표 2> 한국형 액티브시니어 창업가의 개념 정의

산업적 의미	예비시니어 (Pre Senior) 50세 미만	시니어(Senior): 50세 이상	
		뉴 시니어 (New Senior) 액티브 시니어 (Active Senior) 50-64세	올드시니어 (Old Senior) 실버(Silver) 65세 이상
뉴가든 (Neugarten, 1982)	프리시니어 (Pre-senior) 40-49세 은퇴를 앞두고 준비하는 세대	액티브시니어 (Active-Senior) 50-75세의 경력, 경제력, 왕성한 소비력을 갖춘 세대	노인(고령자) 75세 이후를 의미
연구자 정리	액티브시니어 (한국 창업시장을 선도하는 세대)		노인(고령자)
	국내 창업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40.50.60대로 경력, 경제력, 소비력을 갖추고 활발한 활동과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세대를 액티브시니어로 정의 (프리 시니어 포함)		70세 이후를 의미

출처: 연구자가 재구성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액티브 시니어의 범위를 소비의 주체와 비즈니스 관점에서 경력, 경제력과 왕성한 소비력을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 60대로 보는 편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액티브 시니어를 국내 창업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40대에서 60대까지를 베이비부머 세대 및 포스트 베이부머 세대와 일부 에코 세대로 보고, 산업적 의미로도 뉴가든이 명명한 예비(프리) 시니어세대를 포함한 경력, 경제력, 소비력을 갖추고 활발한 활동과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40대에서 60대까지 세대를 액티브시니어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액티브시니어를 40대이상으로 경력, 경제력, 소비력을 갖추고 활발한 활동과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세대로 정의한다.

2.2 경력지향성

2.2.1 경력지향성의 개념과 분류

경력지향성은 자신의 재능, 자신의 욕구와 동기, 자신의 태도와 가치 등이 어우러져 형성된 직업과 관련된 자기 이미지로서, 여러 가지 삶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로 부터의 피드백 등을 통해 형성된다(Schein, 1978).

경력(career)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의

패턴'이라 할 수 있다(Greenhaus et al., 2000). 이와 같은 경력 개념의 정의는 객관적 측면인 직무 활동과 주관적 측면인 한 개인의 일에 대한 태도, 가치, 기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박재환 외, 2011). 경력은 한 개인이 가지는 일련의 일 관련 경험들 그 자체와 그 경험들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포함한다(Werner & Desimone, 2009).

경력지향성이란 경력에 대한 선호 또는 경력 선택과 관련된 욕구, 가치, 재능 등에 관한 개인의 지각을 말한다(Schein, 1978).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직장이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일치하는 직장이나 직업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윤방섭 2004; 유연호, 2008).

개인 경력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적인 관점으로 경력 지향성은 Schein의 경력 닷 개념을 기반으로 DeLong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경력 닷이란 “자신의 욕구와 동기, 재능, 역량, 태도와 가치 등이 융합하여 생성된 직업과 관련한 자기 이미지로서, 삶의 다양한 경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피드백 등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는 한번 닷을 내린 배는 그 위치를 쉽게 벗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경력에 대한 인식도 평생 쉽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Schein, 1978). 하지만 Delong(1982)은 경력 닷 개념을 측정하는 설문에서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역량을 제외한 ‘개인의 동기과 욕구 그리고 경력에 대한 태도,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여 경력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재구성하였다.

개인의 경력지향성 유형을 5개의 주요 경력 닷(Career anchor), 즉 안정성, 자율성, 기술역량, 관리역량, 사업적인 창의성을 제시하였다(Schein, 1978). Schein이 제시한 경력 닷을 근거로 하여 윤방섭(2004)은 관리지향성, 안정지향성,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사업지향성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표 3> 경력지향성의 분류

경력지향성	정의	특성	참고문헌
안정지향성	안정 장기 근무	안정적인 직장에서 장기적 근무 조직의 독특한 가치와 규율에 순응 창업의지가 낮을 것이다	윤방섭 (2004), 유연호 (2008), kolvereid (1996), Feldman & Bolion (2000)
자율지향성	규제 통제	조직과 상사의 규제와 통제 벗어나 창업의지가 높을 것이다	
기술지향성	기술 역량 중시	기술적 역량을 중시 자신 전문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 자신 전문분야에서 창업을 원함	
관리지향성	조직 권한 발휘	조직에서 권한과 영향력의 발휘 지속적 승진이 창업을 통해 관리 지향성을 발휘 할 가능성도 있다	
사업지향성	창의 창업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창의적 생각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을 원함.	

출처: 연구자가 재구성함.

안정지향성이란 직장의 안정성과 장기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조직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특성을 말한다(이상기, 2016). 따라서 조직의 독특한 가치와 규율에 순응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안정지향성을 지닌 사람들은 위험이 따르는 창업에 대한 의욕이 낮다고 볼 수 있다(윤방섭, 2004).

자율지향성은 조직의 구속보다는 자유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가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위치나 업무를 찾아 이동하고, 자율지향성 사람들은 자신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을 것이다(윤방섭, 2004)

기술지향성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창업을 원할 것이다. 새로운 시장의 개척, 신기술 개발은 뛰어난 전략과 기술에 의해 창업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인식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창업을 통해 그 노하우를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봉호, 2018).

관리지향성은 관리적인 책임의 크기로 자신의 성공을 평가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관리자의 경력 경로를 추구하지만, 장기적으로 직장에서 일반관리자로서의 지속적인 승진이 어렵다고 느끼면 창업을 통한 자기 자신의 사업에서 관리지향 성향을 발휘할 기회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윤방섭, 2004).

사업지향성(entrepreneurial creativity)은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려는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지니는 특성이다(Schein, 1978).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려 한다. 이에 따라 다른 유형보다는 창업을 통해 창의적 성과물을 자기 사업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Feldman & Bolion, 2000).

2.3 창업교육

2.3.1 창업교육 개념과 내용

창업교육이란 창업과 관련한 이론교육, 실습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 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교육, 각 지자체의 창업교육,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등 각종 정부 기관,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행하는 교육이라 정의 한다(서성열, 2018).

창업교육이란 사업 아이디어 탐색, 사업계획의 구체화,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업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것이며,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창업교육이다. 창업교육은 창업의 계획부터 절차, 방법 등을 가르치고 창업을 통해 성공하는 방법을 인지하도록 하는 교육활동(나상균, 2016)으로 지금 당장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지 않더라도 다가올 미래의 창업자로서 사업과 경영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박재환·김용태, 2009). 사업아이디어의 탐색,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창업과 관련된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높이는 교육이다(이재석·이상명, 2015; 정헌배, 2017). 창업가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육성될 수 있다는 것으로써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onstadt, 1985).

창업교육의 내용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나누고 있고 국내 대학교도 이론형·실습형 과목으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론교육은 청년기업가 정신, 아이디어 탐색,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절차, 사업 타당성 분석,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상권분석 방법 등 창업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다(서성열, 2018).

창업강의는 현장 전문가들을 통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창업 컨설팅회사, 창업지원 기관의 현장실무 전문가). 창업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창업 이전 단계, 창업 개시 단계, 창업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허남수·최덕철, 2000).

창업 이전단계는 기업가 정신의 함양(창업에 대한 인식제고, 창업 의욕 고취)하고, 창업 개시 단계에 구체적인 실행 절차(아이디어 도출,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창업 이후에는 경영 단계 맞는 경영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3.2 창업교육 만족

만족이란 행동과학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나 욕구에 의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언어 개념이다(박재환·김용태 2009).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피교육자의 인지된 교육 서비스 품질과 기대 수준의 충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이우진 외, 2013). 즉, 교육만족이란 “학습자가 학습함으로써 성취, 인정, 보상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감정 및 가치체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육만족을 “교육자가 교육을 받고 기대하고 있던 어떤 기준치에 대한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 때문에 얻어진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생각과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감정의 만족·불만족에 대한 평가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연주, 2010). 교육 만족도를 ‘교육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Astin, 1993).

2.4 창업의지

일반적으로 창업(Entrepreneurship)은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창업이 하나의 조직을 출현시키는 데 있어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이고 ‘존재 그 자체라기보다는 존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박재환 외, 2011). 이와 같은 과정적 측면에서 창업을 보는 관점은 창업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창업 의지(entrepreneurship intention)는 기업의 설립과 관련된 첫번째 단계로 본다. 즉, 창업 의지는 신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Veciana et al., 2005).

따라서 창업은 창업자의 계획된 행동이라 볼 수 있으므로 창업 의지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전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중요성에 따

라 창업에 관한 학문적 관심의 증대로 창업 의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론 실증으로 다루어지는 주요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박시사·강성일, 2007).

의지(意志)는 자연적 요구에 입각한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의도에 따라 자기결정을 하는 목적 추구 행동을 일으키는 작용이다(문성식, 2018). 행동 과학 연구에서 의지를 심리적 과정으로 보았을 때 의지가 다른 영향 요인들보다도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ird, 1988). 그래서 실제 창업을 위한 의사결정과 실행에 미치는 창업의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호병환, 2016).

“Entrepreneurial Intention”이라는 용어를 번역하여, 국내 창업 관련 연구들에서 인용 시 “창업의지”와 “창업의도”로 함께 사용하여 왔다. 창업의지(이지우 2000, 김홍 2012, 김성순 2009, 정연우 2008), 창업의향(김종운, 2015), 창업의도(하규수·윤백중 2011, 성장수·김진수 2011)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창업의지는 창업의도를 나타내는 태도를 말한다(윤방섭, 2004). 창업과정의 첫 단계로써 자신의 태도나 경험을 창업결행으로 옮기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Bird,1988).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는 창업의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창업의지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5 창업준비행동

창업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으나 국내외 연구에서 창업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창업준비행동을 창업 프로그램이나 창업동아리 참여, 창업정보 수집, 창업지식 교환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얻어지고 창업을 위한 정보탐색 활동을 의미한다(윤지영·이은정,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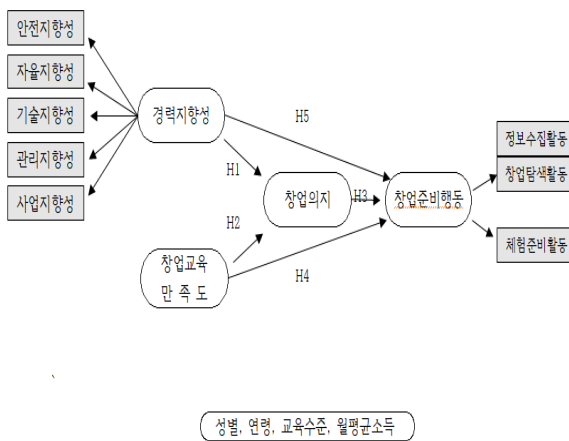
창업준비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의 용어는 창업에서 적합하게 설명된다.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의 진로목표달성 과정에서 실패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적 노력을 의미한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진로결정 이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진로준비행동이라고 한다(Speas, 1963). 따라서 창업준비행동은 진로 준비 행동에서 강조하고 있는 차원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창업정보를 수집하고 창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 갖추기, 사전 훈련을 하는 등의 모든 행동 등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준비행동을 창업(진로)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는 정보수집 활동, 창업(진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위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인 창업탐색활동, 창업(진로) 관련 전문가 멘토링 또는 창업(진로)관련 기술이나 기능을 익히는 체험 준비 활동으로 정의하고 종속변수로 정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창업교육에 참여한 액티브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창업 의지, 창업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경력지향성, 그리고 창업교육 만족도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Ajzen(1991)의 계획 행동이론의 흐름도에 근거하여 연구 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표본의 선정, 자료의 수집, 측정 방법에 대한 논의 등의 설정 과정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서 논의한 <그림 1>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5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경력 지향성은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립변수의 창업가 특성 요인 중 경력지향성 유형을 5개의 주요 경력 닻(Career anchor), 즉 안정성, 자율성, 기술역량, 관리역량, 사업적인 창의성을 제시하였고, Schein이 제시한 경력 닻을 근거로 하여 관리지향성, 안정지향성,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사업지향성의 5가지 유형 분류하였고, 안정지향성은 한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반면에 관리지향성과 기술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윤방섭, 2004). 경력 지향성 5가지 유형 분류별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창업 교육 만족도가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교육 전후의 창업 의지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창

업교육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의 창업의지의 변화와 수강자의 개인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오영미, 2013). 창업교육과 창업 의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창업교육과 창업 의지의 유의한 영향 관계를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창업교육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상기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창업의지는 창업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에 대한 의지가 클수록 창업 준비 행동도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다. 창업의지는 창업 준비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다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창업 의지가 창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상기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피교육자의 인지된 교육 서비스 품질과 기대 수준의 충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임에 따라 결과물을 기반으로 다음을 준비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상기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경력지향성이 창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러 가지 삶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로 부터의 피드백 등을 통해 형성된다는 경력지향성에 따라 창업을 위한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3.3 표본 및 자료수집

대전, 충남, 세종지역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및 각 대학교의 창업교육현장(2019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실전 창업 과정 교육, 일반인 창업강좌, 창업 성장 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아이템으로! 아이템을 돈으로! 강좌, 창업박람회와 창업교육에 참여한 4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2019년 8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총 400부를 배포하여 그중 350부가 수집되었고, 수집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5부와 창업교육(12시간 이상 이수자)을 받지 않은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최종 325부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경력지향성, 창업교육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창업의지, 종속변수로, 창업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경력지향성은 15개 문항, 창업교육만족도는 5개의 문항, 창업의지는 5개의 문항, 창업준비행동은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연구에 포함된 변수와 관련된 설문 항목 이외에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직장경력, 월평균 소득을 설문 항목에 총 46개의 항목 포함하였다. 경력지향성은 윤방섭(2004)의 경력지향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측정 하위 요인으로 5가지 항목(안전지향성, 자율지향성, 사업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을 채택하였다. 경력지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5가지 항목 안전지향성, 자율 지향성, 사업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의 각각 3문항을 추출하여, 총 15개 문항의 경력지향성에 대한 설문 문항을 선정하였다.

교육 만족은 Hoppock(1955)의 교육 만족 연구를 기반으로 정의하고, Tse & Wilton(1988), Smith(1987), Oliver(1993), 최영준·최은수(2008)의 연구를 참조하여 만족도를 측정하는 항목 5개의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창업의지는 유연호(2008), 김현목(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미래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창업의지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준비행동은 진로준비행동은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윤지영·이은정, 2013). 진로준비행동에서 강조하고 있는 차원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창업 정보를 수집하고 창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기, 사전훈련을 하는 등의 모든 행동 등이 창업 준비 행동인 것이다.

본 연구는 창업 준비 행동을 액티브시니어의 향후 창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 활동과 창업에 필요한 도구구비 활동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연구에서 진로 준비 행동의 하위항목으로 정보수집 활동, 창업 탐색 활동, 체험 준비 활동 3가지 하위 변수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별 5문항 설문에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4> 창업준비행동의 설문문항

정보수집활동	
1	관심 창업 관련된 동영상자료를 본다.
2	관심 창업 관련된 TV프로그램을 본다.
3	관심 창업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본다.
4	관심 창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 한다.
5	관심 창업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고자 정보수집 한다.
창업탐색활동	
1	나에게 맞는 창업 무엇인지 탐색하고 있다.

2	나는 적성과 관련지어 창업에 대해 생각한다.
3	나의 상황을 체크하고 맞는 창업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4	창업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정보를 탐색해 본다.
5	창업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창업정보를 얻은적이 있다.
창업체험준비활동	
1	관심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시도한다.
2	관심 창업을 가진 사람(창업가포함)에게 연락을 시도한다.
3	지난 1년 동안 관심 창업분야 기관을 직접 방문한다.
4	하고 싶은 창업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5	관심 창업분야의 학원(기관)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다.

3.5 표본의 선정과 빈도분석

전체 표본 325부 중 40대가 180명(55.4%), 50대가 107명(32.9%), 60대가 30명(9.2%), 70대가 4명(1.2%), 80대가 4명(1.2%) 구성으로 40대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큰 특징이다. <표 1> 국내 창업자 연령별 창업 기업 수 현황(법인+개인) 현황에서 2016년 40대가 (31%), 50대가 (24%), 60대가 (10%), 기타(60대 이상) 순으로 연령별 순위는 일치하였다.

<표 5> 표본의 빈도분석

변수	범주	N	%
성별	남자	208	64.0
	여자	117	36.0
연령	40대	180	55.4
	50대	107	32.9
	60대	30	9.2
	70대	4	1.2
	80대	4	1.2
학력분포	중학교 졸업	3	0.9
	고등학교 졸업	76	23.4
	전문대학교 졸업	44	13.5
	대학교 졸업	143	44.0
	대학원 졸업	59	18.2
직업	월(봉)급생활자	191	58.8
	사업자(개인,법인)	99	30.5
	기타	35	10.8
직업경력	5년미만	67	20.6
	5년이상~10년미만	34	10.5
	10년이상~15년미만	51	15.7
	15년이상~20년미만	56	17.2
	20년초과	117	36.0
월평균 소득	200만원미만	59	18.2
	200만원이상~350만원미만	93	28.6
	350만원이상~500만원미만	68	20.9
	500만원이상~650만원미만	46	14.2
	650만원초과	59	18.2

30대미만과 30대를 제외한 40대이상 구성 비율로만 비교 하면 40개가 (47.0%), 50대가 (37.0%), 60대가 (15%), 60대이상 (0.1%)로 표본의 구성 비율과 유사하다. 40대가 구성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창업 시장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창업하는 연령이면서 현재는 직장을 다니지만, 예비시니어로서 노후의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창업에 큰 관심을 두고 많은 창업 교육에 참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실증결과분석

4.1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신뢰도 분석은 측정하고 있는 개념이 응답자로부터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는 것이다. 신뢰도 분석은 측정 도구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의 결과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 Alpha)와 같은 신뢰도 척도를 계산한 값을 가지고 판단한다. Cronbach's Alpha 값을 해석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6 이상이 면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

4.1.1 탐색적 요인분석

다음 <표 6>과 <표 7> 측정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이다.

<표 6> 독립·매개 요인분석 결과

	구성요소						
	1	2	3	4	5	6	7
만족도1	.833	.209	.121	.090	.133	.103	.081
만족도2	.879	.191	.070	.104	.085	.045	.105
만족도3	.905	.103	.060	.128	.094	.096	.089
만족도4	.901	.152	.078	.143	.091	.084	.061
만족도5	.881	.197	.088	.148	.114	.068	.082
안전지향성1	.182	.014	.073	.839	.019	.162	-.073
안전지향성2	.133	-.046	.042	.902	.035	.168	.030
안전지향성3	.164	.014	.017	.853	.150	.096	.083
자율지향성1	.130	.210	.853	.016	.056	.090	.125
자율지향성2	.075	.106	.904	.009	.108	.139	.149
자율지향성3	.114	.138	.852	.113	.072	.113	.104
기술지향성1	.111	.132	.182	.101	.090	.880	.071
기술지향성2	.078	.102	.121	.216	.154	.860	.153
기술지향성3	.160	.187	.071	.227	.292	.710	.185
관리지향성1	.133	.174	.016	.084	.825	.088	.263
관리지향성2	.136	.256	.136	.060	.827	.188	.084
관리지향성3	.197	.277	.128	.100	.765	.228	.116
사업지향성1	.145	.373	.168	.003	.122	.163	.787

사업지향성2	.123	.377	.165	.033	.151	.110	.800
사업지향성3	.121	.219	.148	.016	.219	.150	.803
창업의지1	.214	.784	.152	.061	.111	.081	.191
창업의지2	.106	.793	.124	.013	.171	.050	.136
창업의지3	.217	.810	.165	.040	.186	.123	.130
창업의지4	.175	.794	.077	-.100	.138	.115	.241
창업의지5	.193	.811	.078	-.019	.180	.128	.248
아이겐값 α	4.330	3.982	2.559	2.483	2.380	2.366	2.345
설명력(%)	17.32	15.92	10.23	9.93	9.51	9.46	9.38
누적설명력(%)	17.32	33.24	43.48	53.41	62.93	72.40	81.78
신뢰도 Cronbach's α	.956	.918	.897	.877	.875	.878	.899

<표 7> 종속변수 요인분석 결과

	구성요소	
	1	2
정보수탐활동1	.797	.313
정보수탐활동2	.764	.335
정보수탐활동3	.742	.456
정보수탐활동4	.787	.438
정보수탐활동5	.756	.451
창업수탐활동6	.517	.100
창업수탐활동7	.734	.446
창업수탐활동8	.720	.481
창업수탐활동9	.700	.541
창업수탐활동10	.596	.615
창업체험준비활동1	.460	.697
창업체험준비활동2	.367	.803
창업체험준비활동3	.350	.812
창업체험준비활동4	.283	.832
창업체험준비활동5	.310	.817
아이겐값 α	5.777	5.073
설명력(%)	38.512	33.823
누적 설명력(%)	38.512	72.335
신뢰도 Cronbach's α	.929	.922

타당성 검증을 위해 SPSS 22를 활용하여 요인분석(각 하위 요인이 모든 문항에 얼마나 어디에 묶여 있는지 탐색하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KMO와 누적설명 비율 독립·매개는 81.78% 이고 종속변수는 72.335% 로 나타났다.

측정변수 구성요인의 각 측정 문항들을 포함하고 요인추출을 위해 요인 수를 9개로 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 작업으로 요인회전은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창업준비행동의 창업정보수집활동, 창업탐색활동,

창업체험준비활동 변수에서 창업정보수집활동과 창업탐색활동은 요인분석 결과 두 개의 변수로 서로의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창업정보수집탐색활동으로 하나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1.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력지향성을 구성하는 5가지 요인 안전지향성,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과 창업준비행동을 구성하는 2가지 요인 정보수집탐구활동, 창업체험활동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AMOS 22를 활용한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30개 문항의 표준적재치와 오차는 상기의 <표 8>과 같다.

<표 8> 1차 요인분석

요인	변수	표준 적재치	오차	개념신뢰도 (C.F)	분산추출지수 (Ave)
안전 지향성	안전1	0.788	0.291	0.899	0.749
	안전2	0.942	0.098		
	안전3	0.796	0.326		
자율 지향성	자율1	0.841	0.220	0.928	0.813
	자율2	0.938	0.084		
	자율3	0.815	0.212		
기술 지향성	기술1	0.844	0.209	0.912	0.777
	기술2	0.907	0.138		
	기술3	0.777	0.264		
관리 지향성	관리1	0.801	0.342	0.887	0.724
	관리2	0.859	0.227		
	관리3	0.852	0.232		
사업 지향성	사업1	0.912	0.170	0.896	0.744
	사업2	0.903	0.205		
	사업3	0.789	0.405		
정보수집 탐색활동	수탐1	0.801	0.357	0.917	0.533
	수탐2	0.785	0.388		
	수탐3	0.855	0.308		
	수탐4	0.884	0.231		
	수탐5	0.864	0.267		
	수탐6	0.424	3.052		
	수탐7	0.837	0.320		
	수탐8	0.853	0.277		
	수탐9	0.884	0.234		
	수탐10	0.837	0.348		
체험준비 활동	준비1	0.861	0.296	0.898	0.639
	준비2	0.902	0.229		
	준비3	0.853	0.376		
	준비4	0.759	0.514		
	준비5	0.767	0.529		

안전지향성의 개념 신뢰도 0.899, 분산추출지수 0.749, 자율지향성의 개념 신뢰도 0.928, 분산추출지수 0.813, 기술지향성의 개념 신뢰도 0.912, 분산추출지수 0.777, 관리지향성의 개념 신뢰도 0.887, 분산추출지수 0.724, 사업지향성의 개념 신뢰도 0.896, 분산추출지수 0.744, 정보수집활동의 개념 신뢰도 0.917, 분산추출지수 0.533, 체험준비활동의 개념 신뢰도 0.898, 분산추출지수 0.639로 기준치를 상회하므로 측정된 1개 요인은 타당성을 충족한다. 1차 요인모형이 적합함을 기반으로 AMOS 22를 활용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2차 요인분석

요인	변수	표준 적재치	오차	개념신뢰도 (C.F)	분산추출지수 (Ave)
경력 지향성	안전	0.245	0.634	0.774	0.431
	자율	0.495	0.436		
	기술	0.570	0.393		
	관리	0.673	0.389		
창업 준비 행동	수탐	0.936	0.100	0.896	0.813
	준비	0.849	0.267		
교육 만족도	만족1	0.855	0.217	0.964	0.843
	만족2	0.894	0.164		
	만족3	0.909	0.138		
	만족4	0.927	0.118		
	만족5	0.922	0.119		
창업 의지	의지1	0.881	0.250	0.911	0.672
	의지2	0.832	0.353		
	의지3	0.857	0.261		
	의지4	0.770	0.499		
	의지5	0.830	0.334		

총 17개 문항의 표준적재치와 오차는 상기의 <표 9>과 같다. 경력지향성의 개념 신뢰도 0.774, 분산추출지수 0.431, 창업준비행동의 개념 신뢰도 0.896, 분산추출지수 0.813, 교육 만족도의 개념 신뢰도 0.964, 분산추출지수 0.843, 창업의지의 개념 신뢰도 0.911, 분산추출지수 0.672,로 기준치를 상회하므로 측정된 1개 요인은 타당성을 충족한다.

4.1.3 상관관계분석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0에서 ±1사이로 나타나며, ±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높고 변화의 방향은 +방향, -방향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가설 검증 전에 변수들 간의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된 연구변수인 만족도, 안전지향성,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 창업의지, 정보수집탐구활동, 창업 체험준비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피어슨의 상관관

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변수간 상관관계수 결과

	만족	안전	자율	기술	관리	사업	의지	수탐	준비
만족	1								
안전	.325**	1							
자율	.264**	.144*	1						
기술	.304**	.386**	.333**	1					
관리	.367**	.226**	.278**	.466**	1				
사업	.332**	.103	.392**	.407**	.477**	1			
의지	.428**	.070	.362**	.359**	.506**	.612**	1		
수탐	.458**	.085	.310**	.347**	.480**	.629**	.742**	1	
준비	.427**	.083	.312**	.277**	.418**	.533**	.684**	.793**	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계수 값이 ±0.9이상은 매우 높음, ±0.7~±0.9미만은 높음, ±0.4~±0.7미만은 다소 높음, ±0.2~±0.4미만은 낮음, ±0.2미만은 상관 관계없음이다. 그 결과 독립변수인 안전지향성은 종속변수 창업의지(r=.070), 정보수집탐구활동(r=.085), 창업체험준비활동(r=.083)으로 서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독립변수인 사업지향성(r=.612**)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r=r=.612**), 정보수집탐구활동(r=.629**), 창업체험준비활동(r=.533**)과의 서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창업교육 만족도,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의 독립변수들도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1.4 추가연구: 회귀분석

<표 11> 경력지향성의 회귀분석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B	표준 오차	베타						
1	(상수)	.615	.285		2.163	.031	.671	.450	.441
	안전	-.077	.051	-.070	-1.524	.129			
	자율	.139	.057	.114	2.432	.016			
	기술	.062	.063	.052	.979	.328			
	관리	.284	.056	.261	5.110	.000			
	사업	.419	.050	.430	8.369	.000			

사업지향성(.430), 관리지향성(.261), 자율지향성(.114) 순으로 영향력이 높고 유의수준에 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지향성(-.070), 기술지향성(.052)은 영향력이 낮았고 유의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4.2.1 연구모형 검증

다음의 <표 12>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개인적인 특성인 경력지향성과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의지,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결과이다.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AMOS 22를 이용하였다.

<표 12>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적합지수	χ^2	df	χ^2/df	RMR	GFI	AGFI	NFI	RMSEA	CFI
평가 기준			≤ 3	≤ 0.05	≥ 0.9	≥ 0.8	≥ 0.9	≤ 0.1	≥ 0.9
모형	322.283	113	2.852	0.048	0.890	0.852	0.926	0.076	0.950

본 연구모형에 관한 검정을 위해서 총합척도에 의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지수는 $\chi^2=322.283$ $df=113$ (p.0.02), GFI=0.890, AGFI=0.852, NFI=0.926, RMR=0.048로 나타났다.

대체로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연구모형을 분석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3>와 같다.

<표 13> 연구모형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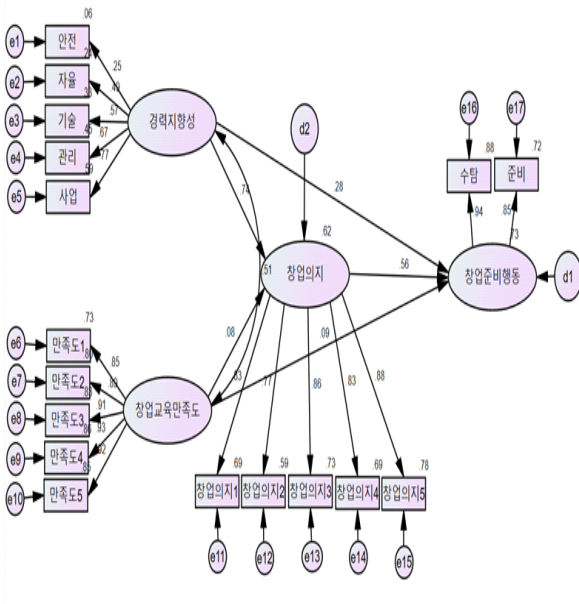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P
창업의지<---경력지향성	3.185	0.856	3.723	0.744	***
창업의지<---창업교육만족도	0.085	0.065	1.312	0.076	0.189
창업준비행동<---창업의지	0.550	0.078	7.049	0.562	***
창업준비행동<---경력지향성	1.195	0.497	2.404	0.285	0.016
창업준비행동<---창업교육만족도	0.104	0.050	2.089	0.095	0.037
안전<---경력지향성	1.000			0.245	
자율<---경력지향성	1.867	0.504	3.702	0.495	***
기술<---경력지향성	2.161	0.552	3.915	0.570	***
관리<---경력지향성	2.823	0.720	3.922	0.673	***
사업<---경력지향성	3.609	0.941	3.837	0.771	***
만족도1<---창업교육만족도	1.000			0.855	
만족도2<---창업교육만족도	1.053	0.048	22.165	0.894	***
만족도3<---창업교육만족도	1.059	0.046	23.057	0.909	***
만족도4<---창업교육만족도	1.111	0.047	23.879	0.927	***
만족도5<---창업교육만족도	1.073	0.046	23.554	0.922	***
창업의지1<---창업의지	1.000			0.830	
창업의지2<---창업의지	0.990	0.061	16.184	0.770	***
창업의지3<---창업의지	0.987	0.052	19.098	0.857	***
창업의지4<---창업의지	1.032	0.059	17.485	0.832	***
창업의지5<---창업의지	1.081	0.056	19.187	0.881	***
수탐<---창업준비행동	1.000			0.936	
준비<---창업준비행동	0.981	0.048	20.461	0.849	***

유의확률 : P<0.05 *, P<0.01 **, P<0.001 ***

각 변수의 유의성은 C.R(critical ratio)을 통해 판단하며, C.R>1.96인 경우 각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4.2.2 연구모형 분석 결과

다음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 분석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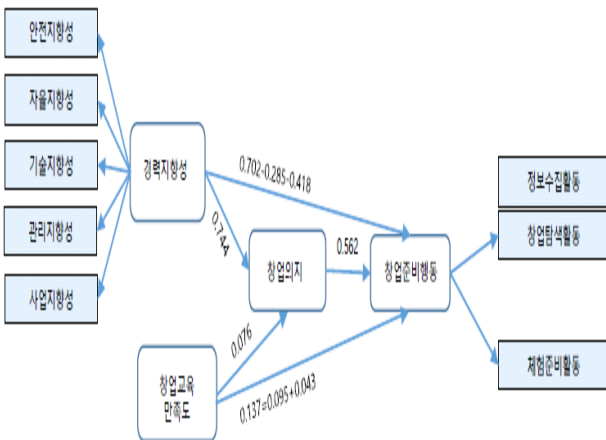


<그림 3>연구모형 분석 결과

유의한 관측변수 기준으로 값의 크기는 0.245에서 0.771까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력지향성에 사업지향성, 관리지향성, 기술지향성, 자율지향성, 안전지향성으로 사업지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만족도(0.855-0.922), 창업의지(0.770-0.881), 창업준비행동(0.849-0.936)으로 서로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3 연구모형 효과

다음 <그림 4>은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 분석 결과이다.



<그림 4>연구모형 효과

<표 14> 연구모형의 효과(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원인(독립)변수	결과(종속)변수	총효과 (A=B+C)	직접효과 (B)	간접효과 (C)	P
경력지향성	창업의지	0.744	0.744		***
경력지향성	창업준비행동	0.702	0.285	0.418	0.016
창업교육만족도	창업의지	0.076	0.076		0.189
창업교육만족도	창업준비행동	0.137	0.095	0.043	0.037
창업의지	창업준비행동	0.562	0.562		***

주) *는 $p<0.05$, **는 $p<0.01$, ***는 $p<0.001$

위와 같이 경력지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는 총 효과 0.744이고, 유의확률 P값은 ***는 $p<0.001$ 로 유의하다. 경력지향성이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는 총 효과 0.702, 직접 효과 0.285, 간접효과 0.418, 유의확률 P값은 0.016으로 유의하다.

창업교육만족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는 총 효과 0.076, P값은 0.189($P<0.05$)로 유의하지 않다.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효과는 총 효과 0.137, 직접 효과 0.095, 간접 효과 0.043, P값은 0.037로 유의하다. 창업의지가 창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효과는 총 효과 0.562, 유의확률 P값은 ***는 $p<0.001$ 로 유의하다.

4.2.4 연구가설 검증

위와 같이 관측변수의 적합도의 모형의 검증 완료 되면 경로 간에 발생하는 실질적인 영향력인 경로계수 값을 도출하고, 가설검정을 하였다.

<표 15> 경로계수 검증 결과

가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t값	검정결과
가설1	경력지향성→창업의지	3.185	0.818	***	채택
가설2	만족도→창업의지	0.085	0.065	0.188	기각
가설3	창업의지→창업준비행동	0.550	0.078	***	채택
가설4	만족도→창업준비행동	0.104	0.050	0.036	채택
가설5	경력지향성→창업준비행동	1.195	0.463	0.01	채택

가설 2인 “창업 교육 만족도는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비표준화 계수 0.085, 표준오차 0.065, P값 0.188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기각하였다. 나머지 가설 1, 가설 3, 가설 4, 가설 5는 p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두 채택하였다.

V. 결론 및 한계점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다양한 경력지향성과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의지와 창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존의 선행논문을 확인(가설 1, 가설 2, 가설 3)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검증(가설 4, 가설 5) 확인 통해 한국형 액티브 시니어 창업가들의 창업정책과 맞춤형 실천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표 16>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가설 내용	채택 여부
가설1	경력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업·관리·자율지향성(유의함), 안전·기술지향성(유의하지않음)	채택
가설2	창업교육만족도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접적 효과를 미치지 못함, 경력지향성을 통한 간접효과	기각
가설3	창업의지는 창업준비행동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와 일치	채택
가설4	창업교육만족도는 창업준비행동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가설 검증,	채택
가설5	경력지향성은 창업준비행동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업·관리지향성(유의함), 자율·안전·기술지향성(유의하지않음)	채택

연구에서 제시된 실증분석 결과와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액티브 시니어의 다양한 경력지향성이 창업 의지와 창업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 “경력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사업지향성(.430), 관리지향성(.261), 자율지향성(.114) 순으로 영향력이 높고 유의수준에 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지향성(-.070), 기술지향성(.052)은 영향력이 낮았고 유의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 “경력지향성은 창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사업지향성(.480), 관리지향성(.227) 순으로 영향력이 높고 유의수준에 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지향성(-.032), 자율지향성(.070), 기술지향성(.026)은 영향력이 낮았고 유의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액티브 시니어의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창업교육 만족도는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 의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창업교육 만족도와 가정환경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으며 단지 경력지향성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에 간접

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창업의지는 가정환경 또는 창업교육의 만족도가 아니라 개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력지향성의 영향을 통해 창업의지를 높인다고 주장한 부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환 외, 2011). 이는 본 연구과 일치하는 결과로 창업교육 만족도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 특성인 경력지향성의 영향에 따라 창업 의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 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반된 결과와 주장이 상존하며 명확한 규명, 창업교육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가설 4: “창업교육 만족도는 창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경력지향성이 내재화되어 있는 액티브 시니어들에게는 창업 의지 보다는 창업준비행동에 우선시 되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액티브 시니어의 창업의지가 창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창업교육만족도는 창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2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을 이번 연구를 통한 액티브시니어 창업가의 새로운 개념 정의를 내리고 설명하였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력지향성이 창업의지와 창업준비행동에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창업의지 위주의 논문 주제에서 벗어나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많이 활용 되는 진로준비행동 기반의 창업준비 행동을 연구과제로 활용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의 검증과 새롭게 경력지향성이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액티브 시니어의 경력지향성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의지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경력 기반의 내재화된 지식을 창업시장으로 활성화하고 실패 없는 성공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창업교육 실시 전후의 명확한 규명과 창업교육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연구 자료가 필요하다.

창업교육을 통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개인의 특징(경력지향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창업업종의 선택에서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까지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창업사관학교 형태의 시니어 창업사관학교 건립을 통한 경력에 맞는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인생 후반기의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고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액티브 시니어 창업의 제도적 기반 조성 및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액티브 시니어세대를 위한 창업 관련 지원은 청년 창업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시

니어 기술창업스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재단이 시니어를 위한 지원 단체로 파악 된다.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패키지지원 사업은 청년창업육성 전용 트랙으로 2018년 신설되어 청년 창업가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창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재정비하기 위하여 지원 자격이 만 39세 이하 인자로,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없는 자로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19년 8월~10월 사이에 추경 예산으로 2019년 중장년 예비 창업패키지지원 사업을 1차(510명), 2차(28명) 처음으로 만40세(79년 8월 13일 이전 출생)인자로 확대 지원 진행 중이다.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창업지원은 많이 미약하다.

액티브 시니어의 대상을 비즈니스의 핵심소비 주체나 복지혜택의 수급 대상으로 바라본 많은 선행연구에서 벗어나 경력과 창업교육을 통한 생산 활동의 주체로 재인식 되어야한다.

표본 선별에 있어 대전 충남 세종지역의 액티브 시니어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 전후의 평가와 효과성에 대한 측정연구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이며 향후 전국 단위 조사와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단위의 연구 진행,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서비스 품질의 연구의 진행, 창업교육의 현장학습 중심의 실제 사례연구의 진행, 청년층을 포함한 비교 연구, 액티브 시니어의 세대별 특성에 맞는 심층 연구 진행 등 창업교육 실시 전후의 명확한 규명과 창업교육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다양한 검증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

고봉호(2018). *계획행동이론의 확장을 적용한 특급호텔종사자의 창업의도 및 행동: 경력지향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김성수(2019). *시니어계층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김성순(2010).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관한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김연주(2010).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특수 대학원 교육 만족도가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종운(2015). 대학생들의 창업의향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18(1), 1-14.

김지은(2016). *액티브 시니어 남성을 위한아웃도어 웨어 개발: 55~69세 남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진수(2010).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차세대 이동통신단말기 디자인 연구*. Smart phone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김홍(2017). 대학생의 창업요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연구. *벤처창업연구*, 7(1), 263-271.

김현목(2013). *1인 창조기업가 정신이 창업기회 인식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SNS 활용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나상균(2016). *소상공인의 창업교육서비스품질, 교육만족도, 신뢰성 및 추천의도의 구조적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31, 123-143.

문성식(2018).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이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시사·강성일(2007). *창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2), 187-204.

박재환·김용태(2009). *창업교육 만족도 및 참여동기가 창업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대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2(2), 959-977.

박재환·인승권·윤인철(2011). *가정환경, 경력지향성 및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4(4), 2499-2520.

서성열(2018). *청년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지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송나윤(2011).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도심형 스마트 실버타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성창수(2011).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성창수·김진수(2011).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3(3), 109-133.

오영미(2013).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유상정(2016). *의사결정성향과 창업지원사업이 시니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유연호(2008).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요인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윤방섭(2004). *창업과 임금근로의 경력선택: 근로가치와 경력지향성의 영향*. *중소기업연구*, 26(4), 141-166.

윤지영·이은정(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대한 인지와 기업이 성향이 창업의지와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전문경영인연구*, 16(4), 61-81.

이상기(2016). *예비창업자의 심리적특성 및 경력지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글로벌창업대학원.

이우진·김진수·김용태(2013). *대학의 창업교육 품질이 교육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8, 105-131.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이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교육 효과*. *벤처창업연구*, 10(3), 61-74.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22(1), 121-146.

정연우(2008). *청소년 창업교육 예비창업자의 개인특성 및 창업의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정영원(2019). *럭셔리 패션잡화 브랜드의 충성도 연구: 2030세대와 5060세대의 비교*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정헌배(2017). *창업교육의 효율적 설계와 실천방안에 관한 고찰*. *벤처창업연구*, 12(1), 123-132.

하규수·윤중백(2011).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2(8), 3406-3414.

허남수·최덕철(2000). *한국 대학의 벤처교육 현황과 그 과정개발에*

-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22(2), 1-38.
- 호변환(2016). *대학 및 사회의 창업지원과 대학생의 창업의지 간의 관계: 자기 효능감과 위험 감수성의 매개효과와 멘토링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홍우정(2019). *사물인터넷(IOT) 기반 어포틴스 식품 패키지 디자인 연구: 스마트 실버 소비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2), 179-211.
- Arkebauer, J. B.(1995). *Understanding the Grey Entrepreneur: A Review of the Literature*, Hosted by University of Ballarat, Ballarat, Australia, 1-4.
- Astin, A.(199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ed*. San Francisco: Jossey-bass.
- Baucus, D., & Human, S. E.(1994). Second Career Entrepreneurs: A Multiple Case Study Analysis of Entrepreneurial Processes and Antecedent Variabl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9(2), 41-71.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Blackburn, R., Mackintosh, L., & North, J.(1998). Entrepreneurship in the Third Age. *Kingston University Small Business Research Centre*, Surrey.
- Delong, T. J.(1982). Reexamining the career anchor model. *Personnel*, 59(3), 50-61.
- Greenhaus, J. G., Callanan, G. A., & Godshalk, V. M.(2000). *Career management*(3rd ed.). New York: The Dryden Press.
- Ha, G. S., & Yoon, J. B.(2011).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85-99.
- Ho, B. W.(2016).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and Society's Start-up Support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ng Role of Self Efficacy and Risk Taking and Mediating Role of Mentoring*.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Hong, W. J.(2019). *A Study on Affordance Food Package Design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Focused on Smart Silver Consumers*.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Hoppock, R.(1955). *Job Satisfaction*, Harper.
- Huh, N. S., & Choi, D. C.(2000).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and Development Program for Venture Education in Korea Universities. *Journal of Industrial Management*, 22(2), 1-38.
- Jeong, H. B.(2017). TA Study on the Efficient Design & Practices for the Start-u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1), 123-132.
- Jung, Y. W.(2008). *The Effects of the Teenage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dividual characteristic Preliminary Founders and Entrepreneurship Knowledg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aster's degree thesis, Jinju National University.
- Jung, Y. W.(2019). *Loyalty of Luxury Fashion Accessory Brands: Comparison of 2030 and 5060 generations*.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 Kim, H.(2017).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63-271.
- Kim, H. M.(2013). *Study of influencing effects of one-pers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o the recognition of business establishment opportunity and business establishment will: study about regulating effects of SNS utilization*. Master's degree thesis, Chung-Ang University.
- Kim, J. W.(2015). An International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Four Country Comparison.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18(1), 1-14.
- Kim, J. E.(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Outdoor Wear for Active Senior Males: Focused on Males Aged 55-69*.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Kim, J. S.(2010). *The Analysis of New Mobile-Phone Design for Active Senior: Focused on Smart Phone*. Master's degree thesis, Hong-ik University.
- Kim, S. S.(2010). *A Comparative Study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between Korea and China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Kim, S. S.(201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the Senior Class*. Master's degree thesis, Konkuk University.
- Kim, Y. J.(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satisfaction of people who in social welfare with the curriculum of special graduate schools on professional identity*. Master's degree thesis, Daegu University.
- Ko, B. H.(2018).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Behavior of the Deluxe Hotel Employees, by using extension about Theory of Planned Behavior: Focusing on career orientation*.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 Kolvereid, L.(1996). Organizational employment versus self-employment: Reasons for career choice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0(3), 23-31.
- Lee, J. W.(2000).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22(1), 121-146.
- Lee, J. S., & Lee, S. M.(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61-74.
- Lee, S. G.(2016). *Factors Influencing the Degree of Preparedness in Startup Intention: Focusing on Professional*. Master's degree thesis, Hoseo University.
- Lee, W. J., Kim, J. S., & Km, Y. T.(2013).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Quality and Satisfaction to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8, 105-131.

- Moon, S. S.(2018). *Impacts of Entrepreneurship and Social Capital on Seniors'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Na, S. G.(2016).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Success Factors and Performances of Small Business Start-up Founders. *Daehan Academ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5(4), 251-268.
- Neugarten, B. L.(1982). *Age or Need? Public Policies of Older People*. Beverly Hills, CA: Sage.
- Oh, Y. M.(2013).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Start-up intention*. Master's degree thesis, Hanbat National University.
- Park, J. H., An, S. K., & Yoon, I. C.(2011). The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 Career Orient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4(4), 2499-2520.
- Park, J. H., & Kim, Y. T.(2009). An Empirical Study of Effect and Improve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2(2), 959-977.
- Park, S. S., & Kang, S. I.(2007).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ravel Agency Employee.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31(2), 187-204.
- Phillips, S. D., & Paziienza, N. J.(1988). History and theory of the assesment of career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31.
- Ronstadt, R.(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0(1), 7-23.
- Ryu, S. J.(2016). *The Influence of Decision-Making Tendencies and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ies on Senior Entrepreneurial Succes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Schein, E. H.(1978). *Career Dynamics: Match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Needs*. Mass: Addison-Wesley.
- Seo, S. R.(2018). *Influence of Youth's Entrepreneurial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 Smith, D. H.(1987).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Present Competitors: Potential Partners. *Life long Learning*, 12(7), 13-17.
- Song, N. Y.(2011). *A Study on the Design of The Smart Silver Town in Urban Type for Active Senior*.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Speas, C. E.(1963).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Sung, C. S.(2011).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enior Entrepreneurship*.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Sung, C. S., & Kim, J. S.(2015).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enior Entrepreneurship.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33(3), 109-133.
- Tse, D. K., & Wilton, P. C.(1988). Model of Satisfaction Formation: An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25(2), 204-212.
- Veciana, J. M., Aponte, M., & Urbano, U.(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 165-182.
- Werner, J. M., & DeSimone, R. L.(2009).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ason, Cengage Learning.
- Yoon B. S.(2004). Career Choice for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Employ: The Effects of Wo7 Values and Career Orientations.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26(4), 141-166.
- Yu, Y. H.(2008).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Career Orientation, Social & Cultural Perception, and Intentions to Participate in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Yun, J. Y., & Lee, E. J.(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Perceptions of Career Barriers and Entrepreneurship on Intention and Preparation Behavior for Venture Business: Implications for training potential CEO.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16(4), 61-81.

The Effect of Active Senior's Career Orientation and Educational Entrepreneurship Satisfaction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Preparation Behavior

Park, Joungbum*
Yang, Youngseok**
Kim, Myungseuk***

Abstract

Looking at the problem of aging in the nation from a demographic perspective, it is not a problem of the overall population, but of the structure of the population. It is the baby boomer and post-baby boomers, the largest population in the country. Baby boomers were born between 1955 and 1963, and currently have a population of 7,001,333, which is 13.6 percent (as of 2015). The Post-Baby Boomer generation was born between 1964 and 1974, with a total population of 9,567,171, accounting for 18.8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In particular, baby boomers and post-baby boomers (32.4% of the total population) have begun to retire or will retire soon. The average life expectancy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falling birth rate of newborns and the declining population of the production population are darkening the domestic economy. In a policy proposal aimed at easing the nation's falling economic growth rate, women's participation rate is as high as Sweden and men's efforts to increase it as high as Japan's, while the elderly rate is desirable to maintain Korea's high level. This is because the expansion of the elderly generatio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could ease a sharp drop in economic growth and reduce the burden of supporting the elderly population. The study, based on this social problem awareness and problem solving plan, 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orientation and satisfaction in start-up education based on the diverse career base of active seniors, and also suggests the importance of customized start-up education on the diversity of active seniors by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suggests the desirable direction of senior start-up policy design, funding, and start-up educ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concept of five factors was defined: active senior, career-oriented, satisfaction level of start-up education,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and the concept definition of an active senior, which is particularly key to the baby boomers in their 50s and 60s, is generally regarded as a source of consumption or welfare benefits, but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active start-up is reflected in the domestic start-up market by young people in their 40s, 50s and 60s. As a result of a hypothesis test.

Hypothesis 1 and Hypothesis 5: Career orientation has been verified to affect the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and the behavior of preparation for a start-up. Hypothesis 3: The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has been verified as having an effect between startup preparation actions. Hypothesis 4: The satisfaction level of start-up education has been verified to affect start-up preparation behavior. However, hypothesis 2: The satisfaction level of education for start-ups does not affect the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Such results can be inferred that satisfaction in start-up education does not have a direct effect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and increases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through the influence of personal career orientation.

Key words: Active senior, Career Orientation, Educational Entrepreneurship Satisfacti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Entrepreneurship Preparation Behavior

* First Author,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bom5189@naver.com

** Co-author, Professor,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ytony@hanbat.ac.kr

*** Corresponding Author,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kmsjws@hanbat.ac.kr